

#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출현과 주체적 각성의 사실성

## - 김남천의 『大河』론

김 종 수  
(경희대학교)

### I . 서론

1939년 1월에 발표된 김남천의 『대하』는 일제 식민 시기 자본주의의 경제 구조가 개인의 의식과 가치를 규정하였던 1930년대의 전사(前史)로서의 ‘근대 초기’를 소설적 시간이자 주제로 설정하고 있다. 1930년대 후반 김남천이 소설적 현재로서 동시대가 아닌 30여년 전의 과거로 회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sup>1)</sup> 그가 자신의 첫 번째 장편소설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 세계는

---

1)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초반에 조선의 소설가들이 근대 초기를 배경으로 작품을 양산하였다. 카프 활동의 해산 과정에서 현실의 재인식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자신들이 변혁의 대상으로 삼았던 현실의 힘에 좌절을 겪은 카프계 소설가로서는 자신들에게 가능성으로 다가올 수 있는 고착되지 않은 세계, 현재의 현실과 대체될 수 있는 세계를 찾는 일이 급선무였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초반 장편소설의 소설적 시공간으로 개화기가 설정되었던 것이다. 김남천의 『대하』(1939년에 인문사의 전작장편소설총서 1권으로 발행), 이기영의 『봄』(『동아일보』 1940.6.11.-8.10. 『인문평론』 1940.10-41.2.), 한설야의 『탑』(『매일신보』 1940.2.4.-1941.8.20.)이 대표적인 예이다.-김동환, 「1930년대 후기 장편소설에 나타나는 ‘풍속’의 의미」, 『관악어문연구』15, 1990. 83-101쪽 참고.

자본주의의 도래와 그에 따른 개인의 의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근대 초기의 사회’였다. 김남천은 1930년대 후반 현실 속에서 발견하기 힘든, 일상 그 자체만으로도 생동감 있는 이념을 체현하는 인물을 근대 초기에서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는 근대초기 풍속과 인물을 새롭게 형상화함으로써 지금-여기의 삶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의미부여를 기획하였던 것이다.<sup>2)</sup>

‘세대-사실-생활’을 강조한 김남천의 소설 창작방법은 『대하』에서 구체적인 형상을 갖게 되는데 기존 연구사는 1930년대 후반 ‘주인공-성격-사상’을 강조했던 임화의 논리에 근거하여 『대하』를 세대소설<sup>3)</sup> 혹은 풍속소설<sup>4)</sup>로 규정하여 왔다. 김남천이 제기한 창작방법론 자체가 모순되었다는 지적과 『대하』의 인물 성격과 환경이 조화되지 않는다는 한계로 김남천이 강조한 풍속을 구조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래서 풍속과 정황의 전형적인 묘사로 “인물이 훨씬 약화되고 그로부터 구성까지도 성긴 감이 없지 않다”<sup>5)</sup>거나 “풍속과 인물들의 관계에 대한 유기적인 고찰의 결여로 인해 풍속묘사와 인물들이 형상화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치밀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단지 개화풍경의 산만한 에피소드식 나열에 그치고 말았다”<sup>6)</sup>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같은 논의는 『대하』가 개화기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있게 천착하지 못하였고 김남천의 로만개조론 등 이론적 근거에 부합하지 못한 소설로 『대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하』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김남천이 제시한 가족사연대기 소설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연구 역시 『대하』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하』가 밀양 박씨 박성권 일가를 서사적 초점으로 삼아 시대적 변천에 의해 재화의 획득 과정과 세대의 추이, 사회적 관습의 변화를 포착하려 한 가족사소설<sup>7)</sup>이라는 규정이 한국소설사에서 지배적이긴 하지만 『대

2) 정여울, 「‘풍속’의 재발견을 통한 ‘계몽’의 재인식-김남천의 『대하』론」, 『한국현대문학연구』 14집, 2003.301-302쪽. 참고

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5, 지식산업사, 1988, 456쪽.

김경수, 「세대소설 연구:장르 설정과 작품 분석」,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89.

4) 김미란, 「김효식 문학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7.

5) 송하춘, 『탐구로서의 소설독법』, 고대출판부, 1996, 88쪽.

6) 이은애, 「김남천의 로만개조론과 그 소설적 대응-『대하』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2집, 1998,283쪽.

하』가 진정한 가족연대기소설에는 미달하고 있다고 평가<sup>8)</sup>한다. 『대하』를 가족사소설에 포함시켜 『삼대』, 『태평천하』 등과 비교하기도 하는데 이 작품들과 달리 『대하』는 세대 간의 입장차이가 선명하지 않으며 구한말의 시대적 상황에서 동시적인 변화의 면모를 각 인물들이 담당하고 있기에 세대론적 갈등의 국면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 그 한계를 지적한다. 특히 이들의 논의에서는 가족사연대기와 풍속묘사가 긴밀한 연관성 속에서 논의되지 못하였고 단절적인 결합의 한계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다.<sup>9)</sup> 이같은 연구사는 ‘풍속의 과잉과 이념의 후퇴’라는 1930년대 후반 비평사적 맥락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대하』를 규정해 온 ‘풍속의 과잉과 이념의 후퇴’라는 평가는 최근 들어 새롭게 조정되고 있다. 작중인물인 형걸을 근대인의 표상으로 상정하여 『대하』를 성장소설(Bildungsroman)의 대표적인 예로 분석하는 경우<sup>10)</sup>나 『대하』에 묘사되고 있는 풍속의 장면들을 개화기에 개인들이 보여준 생생한 욕망의 현현으로 이해하는 경우<sup>11)</sup> 등은 1900년대 초반 구한말 사회를 계몽너머에 자리한 개인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텍스트로 보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논의들은 『대하』<sup>12)</sup>를 한국소설사에서 1930년대 장편소

7)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1979, 386쪽.

8) 이주형, 「1930년대 한국 장편소설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83.

신상성, 「1930년대 한국 가족사소설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6.

9) 정호웅,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과 그 한계」, 이상갑 편 『김남천』, 새미, 1995, 243-244쪽.

김외곤, 「『대하』와 『동맥』에 나타난 개화 사상과 개화 풍경」, 이상갑 편 『김남천』, 새미, 1995, 255-269쪽.

10) 허병식, 「교양소설과 주체확립의 동력학-김남천의 『대하』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권 1호, 2001, 115-136쪽.

11) 정영울, 「『풍속』의 재발견을 통한 ‘계몽’의 재인식-김남천의 『대하』론」, 『한국현대문학연구』 14집, 2003, 293-329쪽.; 김중욱, 「김남천의 『대하』에 나타난 개화풍경」, 『국어국문학』 147호, 2007, 103-123쪽.

12) 김남천은 『조광』(1941년 5월호)에 「개화풍경」이라는 중편창작을 전제하면서 작품의 말미에 “이것은 『大河』 第二部 『動脈』 中의 一節이다”라고 밝혔다. 『동맥』은 해방 후 『신문예』 2호(1946년 7월)와 3호(1946년 10월), 그리고 『신문예』가 『신조선』으로 이름을 바꾼 후인 1947년 2월(『신조선』 1호), 3월(『신조선』 2호), 5월(『신조선』 4호), 6월(『신조선』 5호)에 각각 연재된다. 『동맥』 중 4회, 5회는 1941년

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대하』가 묘사하고 있는 개화기의 역동적 일상을 강조하고 있다.

김남천은 풍속의 재현으로 “인물로 된 이데”<sup>13)</sup>를 구현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근대사회의 모랄을 과학적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김남천이 “고대의 생산 방법의 붕괴와 관련하여 상품경제의 제요소가 발생하고 개인이 비로소 형식적으로 독립하는 시대에”<sup>14)</sup> 로만이 시작된다는 인식을 가졌던 점은 『대하』의 이해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김남천은 장편소설을 경제구조의 변화<sup>15)</sup>와 개인의 발견이라는 역사-사회적 변모 과정의 산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근대) 세계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모랄라이즈되고 휴머니이즈되는 것”을 문학의 본질로 이해했으며 그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장편소설이라 생각했다. 김남천에게 장편소설은 근대의 형식이었던 것이다. 김남천이 『대하』에서 구현하려고 하였던 “현세인 그 자체에 대한 새

조광에 전제되었던 「개화풍경」과 같은 내용이다.-김재남, 『김남천 문학론』, 태학사, 1991, 144쪽 참조)

- 13) 여기에서 말하는 “인물로 된 이데”란, 김남천이 이기영의 『고향』에 등장하는 김희준을 비판하듯이 이념을 말하는 인물이 아니라 “특정 시대의 사상, 이념과 세계관이 그대로 인물이 되기”이다. 그 인물의 행동, 사고에서 드러나는 시대의 관습, 풍속의 재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때 풍속이란 사회적 습관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사회적 습관, 습속은 사회의 생산 기구에 기한 인간 생활의 각종의 양식에 의하여 중국적으로 결정된다. “풍속, 습속은 생산관계의 양식에까지 현현되는 일종의 제도(예컨대 가족제도)를 말하는 동시에 다시 그 제도 내에서 배양된 인간의 의식인 제도의 습득감(예컨대 가족의 감정, 가족적 윤리의식)까지를 지칭한다.”-김남천, 「일신상 진리와 모랄」, 『조선일보』, 1938.4.22.
- 14) 김남천, 「조선적 장편소설의 일고찰」, 『동아일보』 1937.10.20.
- 15) 김남천은 자본주의 사회와 로만 형식의 등장이 그 역사적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에 있어서 ‘로만’의 꽃이 아름답게 만발할 수 없었다는 것은 ‘로만’이라는 장르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전형적인 표현형식이라는 것과 조선에 있어서의 자본주의가 가장 뒤떨어져서 그의 걸음을 시작하였고 다시 그것이 극히 기형적인 진행밖에는 갖지 못하였다는 것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조선소설의 맹아는 역시 화폐경제와 맹아적 상품관계가 나타난 역사적인 시대 이후의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략)... 조선에 있어서의 사회적 제 관계의 遲遲한 기형적인 발전은 사유에 있어서는 아시아적 후퇴를 결과하면서 로만 蓂花의 기반을 상실케 하고 동시에 의연히 내포한 채로 움직이는 생산관계의 시민적 모순은 일방으로 지극히 불활발하고 왜곡된 장편소설을 산출시키는 토대가 된 것이다.”(김남천, 「조선적 장편소설의 일고찰」, 『동아일보』 1937.10.20.)

로운 발견'에 초점을 맞춘다면, 김남천이 발견한 “현세인”은 두 가지의 새로운 인간형이라 말할 수 있다. 하나는 도래하는 자본주의의 경제적 현실감각을 갖춘 경제적 인간형<sup>16)</sup>이며 다른 하나는 봉건적 이념을 일탈하며 자신의 열정을 따르는 낭만적 인간형이다.

본고는 『대하』에 등장하는 풍속의 장면들이 새로운 인간형들의 제시를 통해 사회의 경제적 구조 변화를 형상화하고 그와 연동하며 개인적 열정이 어떻게 재현되는가를 규명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1930년대 장편소설들에서 묘사되는 신흥 부호들의 문화사회사적 의미를 구성해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대 형성기 사랑의 문제로 촉발된 개인의 존재론적 고뇌와 윤리의 혼재·교체과정을 재구해 봄으로써 근대인의 형성과정에 대

16) 본고에서는 근대초기 화폐경제로 재편될 사회의 질서와 가치체계를 예견하고 화폐에 대한 소유욕을 실현하는 인물을 경제학의 기본 전제인 ‘호모 이코노미쿠스’ 개념을 차용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의 도래가 제도도 정착되기 이전 그 이념을 감각적으로 체화한 개인이 자본주의가 아직 제도화 되지 않은 사회에서 어떻게 경제적 의식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그의 경제적 활동이 전개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적 관습은 무엇인지 탐색해 본다. 본고에서 다루는 Homo Economicus란 경제학의 기본 가설 중 하나로 자기이익, 즉 사익(self-interest) 추구를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인간형이다. 미래의 이익을 위해 순간의 격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계산하는 근대인이다. -James Ferguson, “Economics and Barbarism: An Anthropological Comment on Pearson’s “Homo Economicus””,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32:4, 2000, pp991-998.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규정할 때 등장하는 “자기 이익의 극대화”라는 동기적 합리성은 자본주의의 경제인간을 대변하며 그러한 경제 인간은 확실성, 위험부담, 불확실성의 선택 상황 아래서 가능한 대안들과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인식적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가정된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이해하는 현실적인 인간존재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들의 개인적 이익과 합리성은 종종 상충되기도 한다. 특히 사회의 기본질서와 생산기반이 파괴되고 공동체마저 붕괴일로에 있는 전쟁상황에서 인간은 우선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오직 자신의 이해만을 추구하며 필요하다면 가치관의 전도마저 서슴지 않는 자기 합리화에 이른다.

그래서 사회학 일반에서는 호모 이코노미쿠스, 경제적 인간이라는 말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이익을 위하여 자신을 적절히 조절하고,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특히 자신에게 이익이 될 기회가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따돌리고 이익이 될 행동이라면 서슴지 않고 해치워 버리는 특징을 가진 인간형으로 규정된다.-도모노 노리오, 『행동 경제학』, 이명희 역, 지형, 2007. 25쪽.

한 문학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자본주의의 도래와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선망

박성권의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하』의 서사적 전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발흥하기 시작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면면이다. 나카니시 상점과 칠성이네 점포를 중심으로 잡화점들이 단오 운동회에서 팔 물건을 구비하고 성천마을 사람들이 새로운 물건에 큰 관심을 나타내는 장면은 새로운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나카니시 상점은 근대 초기 한국 사회의 경제적 변모 과정에 영향을 끼친 일본인의 역할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sup>17)</sup>이기도 한데, ‘성천’이라는 변방에서도 물질적 거래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가 가져온 변화를 암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박리균 형제의 일화이다. 조상 중에 열녀가 나온 양반가임을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다니는 박리균 형제는 박성권이 자신들과 같은 밀양 박씨라고 주장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며 그를 근본없는 인물이라고 무시하여왔다. 하지만 자신들의 마방을 여관으로 개축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해 박성권에게 비굴하게 돈을 빌릴 수밖에

17) 근대 초기 한국 사회의 경제적 변모과정에 일본인의 유입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896년 청일전쟁이 끝난 다음해 조선의 거류일본인 세력은 비대해지고 상권의 힘이 강해진다. 그 이유는 첫째 청일전쟁 패배로 청나라 상인세력이 크게 위축되어 일본상인 독점지배의 상태가 되었고 둘째 일본군대가 뿌리고 간 전쟁경비의 여력으로 일본상인들의 경제력이 든든했고 셋째 청일전쟁 승리후 일본인이 한반도에 신천지를 개척코자 거류민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1907년 한성거류 일본인 직업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 서울에는 14,829명이 거주, 다양한 직업에 일본인들이 종사하고있었는데, 그 중 영세한 잡화상이 많았다. 노일전쟁 승리 후 맨주먹으로 닥치는 대로 생업을 꾸려간 계층이 대단히 많았음을 실감케 한다(손정목, 「개항기 한국거류 일본인의 직업과 매춘업, 고리대금업」, 『한국학보』 18, 1980. 101-104쪽) 일본은 정치적 사건을 통해 조선에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서울을 비롯해 상업적 이득을 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일본인들이 자리를 잡고 많은 이득을 얻었던 것이다. 『대하』에 등장하는 나카니시(中西)가 성천에 자리잡게된 내력을 소개하고 있는 『대하』는 근대초기 조선 지방에까지 끼치고 있는 일본인의 경제적 영향력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없게 된다. 이 사건은 신분제 질서가 중시되던 사회에서 돈의 거래에 기반한 시장 경제로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들이 돈을 매개로 한 상품 거래로 연결되고 있는 경제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사회를 나카니시 상점과 박리균 형제의 일화로 잘 드러나고 있다. 나카니시 상점의 잡화들이나 칠성이가 평양에서 사온 자전거에 대해 사람들이 보이는 열렬한 호기심은 사소하고 무의미한 대상에도 의미를 할당하는 시장경제의 면모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sup>18)</sup>

단오날의 운동회 행사장에서 다른 인물들을 모두 제치고 대운동회 부회장의 자리에 앉은 박성권의 모습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박성권이 운동회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현시하며 선망의 대상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은 전시대의 신분적 질서와 다른 사회의 변화하고 있는 체계를 묘파하고 있다. 곧 경제적 인간이 선망의 대상이 된 것이다. 박성권이 성천에 자리잡은 이후로 줄곧 근본없는 인물이라고 멸시해온 아전출신 양반가 박리균 형제가 자신들의 집을 담보로 박성권에게 비굴하게 돈을 빌리게 되는 상황은 바로 경제적 인간이 새로운 사회의 주도적인 인물임을 현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하』에서 박성권이 충분히 근대적 의미의 자본가로 묘사되지 못했다는 지적<sup>19)</sup>은 일면 타당한 점이 있다. 도래하는 자본주의의 보편적 정황을 묘사하기 위해 자본가의 면모를 풍부하게 제시하는 것이 역사적 법칙성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성권은 근대 초기 화폐경제로 재편되는 사회의 질서와 가치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한국적 상황에서 구현하는 인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박성권을 “당대 역사관이나 민족적 비전과는 관계없이 오직 개인적인 향락에 관심이 쏠린 속물의 전형”<sup>20)</sup>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신분상승 과시욕을 가진 봉건적 허위의식에 사로잡힌 부정적 인물”<sup>21)</sup>로 지적하는 것은 『대하』에서 묘사된 박성권이 근대 초기의 시대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인물임을 반증한다.

18) 허병식, 앞의 글, 120쪽 참조.

19) 정호용, 앞의 글, 242쪽.

20) 오양호, 『한국 현대소설과 인물 형상』, 집문당, 1996, 137쪽.

21) 김외곤, 앞의 글, 260쪽.

당대의 “역사적 특성으로부터 유출된 성격과 사건의 설정”을 위해 “가족사의 초석으로는 근본없는 신흥 부호로 하되 그후 30년을 존명할 장년, 지주 겸 고리대금업자”<sup>22)</sup>인 40세의 박성권은 김남천이 자신의 창작방법론에 입각해 구축해낸 인물이었다. 김남천이 이해하고 있는 리얼리즘에서는 부르주아지의 생생한 욕망의 흐름을 긍정하는 것이 리얼리즘의 정칙이었다.<sup>23)</sup> 김남천은 “속물을 비웃고 경멸하는 신경질적인 고고한 결벽성”이 리얼리즘이 아니라 화폐에 대한 소유욕을 긍정하는 인물을 통해 속물성 자체를 강렬하게 드러내는 것이 리얼리즘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다. 김남천의 리얼리즘을 근거로 한다면 한국의 근대초기 경제적 인간형의 특징을 『대하』에 등장하는 박성권<sup>24)</su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권은 “돈의 위력을 누구보다도 확신하는 날카로운 선견의명”<sup>25)</sup>을 가진 인물이다. 자신의 돈 앞에 세상이 머리를 숙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있으며 지난 10여년간 축재해온 박성권은 이제 마을에서 박참봉으로 불리며 마을사람들의 중심 가문으로 부상한다. 박성권이 경제적 현실감각을 발휘하여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23세부터였다. 청일전쟁의 혼란기에 고향에 남아 군대를 상대로 장사를 시작한다. 군수품 운반업으로 은화 엽전을 모아 집과 땅을 헐값에 사고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부를 축적한 인물이다. 박성권은 자본주의 사회의 보편적 인간형인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가 한국에서 어떻게 등장하는가를 보여주는 예인 것이다.

그러나 박성권은 근대적 가치를 숭상하고 있는 새로운 세력을 상징하고

22) 김남천, 「작품의 제작 과정-나의 창작노트」, 『조광』 1939.6.

23) “발자크의 수법에 의하면 작가는 속물성을 비웃는 인간이 아니라, 속물 그 자체를 강렬성에서 구현하고 있는 인물을 창조하는 것이 리얼리즘의 정칙이었다”-김남천, 「성격과 편집광의 문제」, 『인문평론』3, 1939.12.

24) 개인이 근본적으로 자신의 주인이자 지배자라는 개념으로 무엇보다 인류를 구성하는 우선 요소가 사회적 집단(국가, 계급 등)이 아니라 개인(분리할 수 없고 서로 환원되지 않으며 실제로 홀로 느끼고 행동하며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신념에 기초한 개인주의가 등장할 수 있었던 까닭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자유 시장경제의 발전 덕분이었다. 즉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 선택을 하는 인간의 사고가 경제적 개인주의이며 그 화신을 호모 이코노미쿠스라 평가할 수 있다.-박경서, 「개인주의와 호모 이코노미쿠스」, 현대영어영문학 51권 1호, 2007, 1-21쪽 참조.

25) 김남천, 『대하』, 인문사, 1939, 18쪽. 이후 본문 인용시 쪽수를 괄호 안에 표시함.



있다<sup>26)</sup>기보다는 돈의 가치를 중시하며 사익을 중시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경제적 인간형의 면모가 강한 인물이다. ‘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상층 신분의 권위를 획득하겠다는 욕망은 봉건적 체계를 거부하고 새로운 체계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근대의 새로운 세력이라고 할 수 없다. 봉건적 체제의 신분적 질서의 상층부로 편입하겠다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때 욕망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돈의 가치를 체득하였다는 점이다. 박성권은 현실적인 삶에서 돈의 가치를 좇고, 재물의 가치로 상승한 사회적 신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래적인 신분제를 숭상한다. 이러한 인식은 봉건적 체제와는 달리 새로운 사회에서는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절감하여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었던 것이며, 모은 재화를 바탕으로 봉건적 체제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박성권은 시대의 변화에 모순된 가치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경제적 인간의 면모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구조에서 남다른 경제 감각으로 축적한 부를 근거로 봉건적 신분질서의 상층에 편입하는 인물은 1930년대 장편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인물이다. 『삼대』의 조의관이나, 『고향』의 안승학, 『태평천하』의 윤직원처럼 박성권도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봉건적 신분제의 위계질서에 편입하려는 욕망을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사회에서 재화의 가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인식을 일찍부터 경험한 박성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성실하고 악착같은 면모로 사익을 극대화하는 생활이 근대초기 한국의 경제적 인간형의 면모인 것이다. 그러나 박성권 같은 근대 초기 경제적 인간형들은 보편적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제약하는 전근대 사회의 이념에 대해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축적된 부로 봉건적 신분제의 상층에 편입하려 한다는 점에서 인물의 속물성이 강화된다. 박성권과 같은 인물의 속물성은 근대초기 한국 사회에서 등장할 수 있었던 정황의 전형적 면모를 보여준다 하겠다.

26) 정호용, 앞의 글, 244쪽.

### Ⅲ. 낭만적 사랑을 통한 주체적 각성

『대하』가 박성권을 통해 시장경제 체제로 변화하는 사회의 전형적 정황을 묘사하고 있다면 박형걸을 통해서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유입과 함께 개인의 의식이 성장하고 있는 면모를 보여준다. 박형걸은 박성권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적자가 아니라 서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가족 제도의 수혜자 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하다. 그는 한편으로는 가족 관계에서는 여전히 봉건적인 질서 속에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근대적 제도-학교-에 몸을 담고 있다. 형걸이 지닌 이중성은 이 인물을 문제적인 인물로 만든다. 그는 두 세계의 경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출은 그의 의지가 욕망하는 바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형걸은 아버지를 부정하지만, 이 때 아버지는 개인적인 존재인 박성권을 넘어서 아버지 일반, 그리고 아버지를 정점으로 하는 가족 관계 전체인 것이고, 그리고 가족 관계로 남아있는 봉건적인 질서 자체이다.<sup>27)</sup> 이때 개인의 주체적인 각성의 과정은 결혼문제에서 비롯된다. 이복형제 형선이 형걸의 어머니가 신부감으로 생각하고 있던 보부와 혼인을 하게 되고 형걸은 울분에 쌓여 미뤄왔던 삭발을 감행한다. 결혼의 장애가 삭발이라는 전통 파괴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 서사적 인과성을 갖고 있다. 형걸이 결혼에 장애를 느끼고 결혼이라는 제의를 거부하게 되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인정받는 성장을 거부하는 의미로 이해되며 이때 삭발행위는 전통을 거부하겠다는 표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형걸은 봉건적 관념으로 전개되는 결혼을 거부하며 개인적 각성의 계기를 마련하는 인물인 것이다.

신분제라는 봉건 이념을 따름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으려는 경제적 인간 박성권의 서자 박형걸을 작가는 개인의 사고와 감정을 규제하는 근본적 근거로서의 가족제도에 환멸을 느끼는 문제적인 인간으로 설정<sup>28)</sup>하였다. 형걸이 처한 삶의 조건들은 시대의 정황을 재구해 볼 수 있는

27) 채호석, 「김남천의 『대하』를 빌미로 한 몇 가지 생각」, 『한국 근대문학과 계몽의 서사』, 소명출판사, 1999, 371-2쪽. 참고.

28) “시대정신의 구현된 성격으로 발랄해야 전통의 파괴자, 가족계보의 이단자를 청소년에서 구하되 서자학도로 할 것. 이리하여 박성권의 3남 서자, 19세의 박형걸이가 선발”-김남천, 「작품의 제작 과정-나의 창작노트」, 『조광』 1939.6.

풍속으로 현시된다. 우선은 형걸과 또래 청년들의 결혼 연령이 과거보다는 늦어졌다. 대봉, 형걸, 형선, 보부 등은 모두 19세로서 개화한 최관술같은 인물이 보기에조차 조혼의 연령기가 많이 늦춰졌다. 더구나 대봉이나 형걸이 집안이 결정한 혼인을 달가와하지 않는 모습이나 집안의 결정을 따르면서도 내면에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장면 등은 봉건적 결혼관에 변화가 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통 결혼식의 자세한 묘사는 그 형식이 철저하게 고수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예식에서 발생하는 완고한 형식의 균열을 내재하고 있음을 말한다. 혼례식을 보러 모인 사람들이 갱고지 최관술이 치장한 개화문물에 더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는 것을 본다면 『대하』에 나타난 혼례식에 대한 세밀한 묘사는 전통적 가치의 수호나 아름다움을 말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새로운 문물이나 풍습에게 자리를 내줄 처지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박형걸을 내세워 근대 초기 변화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주체적 각성을 구상화하는 『대하』에서 인물 갈등의 중심에 봉건적 결혼제가 있음은 앞서도 지적하였다. 가부장에 의해 배우자가 결정되는 가족 구속적인 결혼(family-bound marriage)이 전통적인 것이라 했을 때, 감정으로서의 사랑은 그런 전통적 가치에 대한 타자로 등장하기 마련이며 여기서 문제는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자유를 획득하느냐 하는 것의 문제<sup>29)</sup>가 부각되기 때문이다. 가족의 범주에서 벌어지는 형걸의 갈등은 근대로의 전개가 불러오는 필연적 현상들이다. 가족은 언제나 봉건이념의 중심이 되어 왔고, 풍속의 재현을 목표로 한 『대하』는 가족의 윤리를 구상화함으로써 리얼리티를 구축하고 있다. 혈통적 운명의 영역에서 소외된 형걸이 비애를 해소하고 그 운명으로부터 탈출하려고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시대의 변화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결혼에 장애가 발생하고, 공동체적 성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 형걸에게 생겨나는 것은 육체적인 애욕이었다. 그것은 전통과 관습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힘이였다. 형걸은 삭발한 후 울분을 다스리지 못해 산에서 배회하다가 자기 집의 막서리인 두칠의 아내 쌍네를 만나게 된다. 이때

29) 서영채,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양상과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2.18쪽.

쌍네는 “하나의 난만한 완숙한 여자의 육체”(56)이다. 그는 이후로 쌍네에 대한 그리움을 감추지 못하며 “눈, 코, 입, 등골, 그리고 가슴, 저고리 속에 감춰진 채 불룩한 가슴”(73)을 생각한다. 결국 그는 두칠이가 없는 틈을 타서 쌍네의 방으로 찾아가기에 이르고 이러한 형걸의 행동은 전통적인 관습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든다. 쌍네를 향한 욕정은 형수가 된 보부루를 향한 욕망의 대리만족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일시적인 것이지만 형걸에게 의미있는 사랑의 대상은 기생 부용이다. 대봉이와 함께 전도하다가 만났던 부용은 형걸의 자아의 성장에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다. 부용과의 만남은 쌍네에게 지냈던 강렬한 애욕을 일시에 무화시킬 만큼 그에게 깊이 있는 체험이 된다.<sup>30)</sup>

부용이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나, 형설이 자신만은 부용이를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그와 어엿하니 결혼생활을 이루어 보자면, 어떻게, 무엇부터 차비를 차려야 옳을는지 도무지 염이 나질 않았다.(382)

형걸이 부용에게서 느끼는 애정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그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지 낭만적 사랑이며 이것은 자신에 대한 본격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다. 형걸의 이복형제들의 결혼이 박성권의 의도에 맞춘 계약결혼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형걸은 스스로 자각하여 성취하려는 결혼을 생각한다. 형걸이 부용에게 애정을 느끼고 그에 이어지는 사랑에 의한 결혼을 꿈꾸게 될 때 그것은 자유의 이념과 결합되고 그 때의 사랑과 결혼이란 개인의 권리와 인간애를 나타내는 표지가 된다. 낭만적 사랑을 통해서 개인들이 행복을 추구하려는 충동과 내적 탐구에 대한 열정, 자아발전의 기나긴 여정을 시작하려는 욕구가 구현되기 시작하는 것이다.<sup>31)</sup> 기생 부용과의 결혼을 염두에 둔 19세 형걸이 결혼준비를 걱정하는 일은 결혼의 전통적 관습과 결별하는 용기인 것이다. 더구나 기생과의 결혼은 신분제의 봉건적 기준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신분제의 관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의 조건인 것이 엄연한 사실이지만 서자로 겪는 신분제의 차별이 형걸에게 주체각성의 계기를 마련하게 한다.

30) 허병식, 앞의 글, 124-5쪽 참조.

31) 재클린 살스비, 『낭만적 사랑과 사회』, 박찬길 역, 민음사, 1985, 24-30쪽 참고.

형걸이 가족의 구성원들과 여자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점은 봉건적 이념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는 존재론적 문제인 것이다. 마음 속의 인연으로 생각했던 보부와는 형선과 대립하여 인연을 갖지 못하고, 막서리의 처 쌍네와는 형준과 갈등하여 형준의 질투로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또한 부용과 사랑을 나누지만 아버지와 대결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 가출을 결심하게 된다. 형걸의 가출은 서자로서의 그가 더 이상 봉건적 이념-가부장의 질서를 따를 수 없는 패배자의 결과인 것이다. 이제 그의 행보는 가족의 윤리가 아니라 청춘의 열정, 자기 자신을 믿고 따라가는 자기 결정의 논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형걸이 문우성을 “선도자의 지위에서 수단을 조력해주는 원조자의 지위”(396)로 인식하는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자기 결정의 주체로 거듭난 형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가출은 모험이자 운명인 것이고 내면 고투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근대적이다.

#### IV. 결론

『대하』는 근대 초기 격변하는 경제적 구조와 봉건적 이념에서 탈피하고 있는 개인의 의식 사이에서 빚어지는 괴리를 박성권이라는 인물과 그 가족의 일상적 면모를 통해 재구성하고 있는 소설이다. 박성권은 자본주의가 도래하는 시대의 보편적 인간형인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면모를 보여주는 근대초기의 인물로서 일제강점기 장편소설에 등장하는 경제적 현실감이 뛰어난 작중인물들의 삶의 궤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인물이다.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에서 이념과 윤리의 강박을 고려하지 않고 사적인 이익의 축적에 몰두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의 새로운 주도세력으로 부상하게 된 박성권과 같은 인물은 봉건적 이념을 대체하는 경제적 부를 현시하여 사회의 선망의 대상이 된다. 경제적 감각이 새로운 사회의 가치로 부상하고 그에 호응하는 인물이 “현세인”임을 『대하』는 묘파하고 있는 것이다.

『대하』가 구현하는 현세인의 형성과정은 경제 논리가 지배하게 된 사회의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의 열정과 감정의 소통회로에서의 변모과정을 통

해서도 근대 초기 한국 사회의 전형적 정황을 충실하게 재현한다. 『대하』에서 형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랑의 풍속도는 신분제의 봉건적 이념 안팎을 넘나들며 개인의 존재론적 질문을 내포하고 있다. 근대 초기 청춘들은 사랑의 선택과 가족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는 근대적 자아의 면모를 구현한다.

경제적 인간의 출현과 청춘남녀의 윤리적 변화가 근대 초기 평안도 성천의 박성권 집안에 초점을 맞춰 형상화된다는 점에서 『대하』가 근대 초기 한국 사회의 격변하는 면모를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인간이 부상하는 공적 영역의 변화와 낭만적 사랑의 실현과 그 좌절이 제시하는 개인의 발견 과정은 봉건적 이념이 무력화되지만 여전히 개인들의 의식을 규정하는 삶의 윤리로 자리하고 있음과 동시에 새로운 윤리가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젊고 발랄한 청춘남녀의 존재론적 고뇌가 연애의 문제로 촉발되면서 윤리적 기준의 혼재, 교체 과정으로 묘사된다. 기생 부용을 두고 경제적 현실감각으로 구축된 현재적 지위를 잊고 청춘을 보상받고 싶어 하는 박성권의 욕망과 봉건적 관습을 벗어나 개인의 존재론적 고뇌를 사랑으로 실천하려는 박형걸의 의지가 충돌하는 소설의 결말은 새로운 시대에 가족의 윤리와 사랑의 논리가 상충되는 사건이다. 이것은 박리균 형제가 박성권에게 무릎꿇고 돈을 빌리는 사건만큼이나 근대 초기 격변하는 사회의 단면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주의적 사건인 것이다.

## ❖ 참 고 문 헌

### <기본자료>

- 김남천, 『대하』, 인문사, 1939.  
\_\_\_\_\_, 「현대 조선소설의 이념」, 『조선일보』, 1938.9.18.  
\_\_\_\_\_, 「일신상 진리와 모랄」, 『조선일보』, 1938.4.22.  
\_\_\_\_\_, 「조선적 장편소설의 일고찰」, 『동아일보』 1937.10.20.  
\_\_\_\_\_, 「특집-내 작품을 해부함」, 『조광』, 1939.7.  
정호웅, 손정수 편, 『김남천 전집1』, 박이정, 2000.

### <단행본 및 논문>

- 김경수, 「세태소설 연구: 장르 설정과 작품 분석」,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89.  
김동환, 「1930년대 후기 장편소설에 나타나는 ‘풍속’의 의미」, 『관악어문연구』 15, 1990.  
김문주, 「이기영의 『고향』과 김남천의 『대하』 비교 연구」, 『비교한국학』 14권 1호, 2006.  
김미란, 「김효식 문학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7.  
김외곤, 「『대하』와 『동백』에 나타난 개화 사상과 개화 풍경」, 이상갑 편 『김남천』, 새미, 1995.  
김중욱, 「김남천의 『대하』에 나타난 개화풍경」, 『국어국문학』 147, 2007.  
도모노 노리오, 『행동 경제학』, 이명희 역, 지형, 2007.  
박경서, 「개인주의와 호모 이코노미쿠스」, 『현대영어영문학』 51권 1호, 2007.  
배순복, 「김남천의 『대하』에 나타난 근대성 연구」, 인천대석사학위논문, 2002.  
서영채,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양상과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2.  
손정목, 「개항기 한국거류 일본인의 직업과 매춘업, 고리대금업」, 『한국학보』 18, 1980.  
송하춘, 『탐구로서의 소설독법』, 고대출판부, 1996  
신상성, 「1930년대 한국 가족사소설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6.  
\_\_\_\_\_, 「한국가족사소설의 형성과 리얼리즘 연구」, 『국어국문학』 101, 1989.  
오양호, 『한국 현대소설과 인물 형상』, 집문당, 1996.  
이은애, 「김남천의 로만개조론과 그 소설적 대응」, 『한국문예비평연구』 2, 1998.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1979  
이주형, 「1930년대 한국 장편소설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83.

- 임환모, 「김남천의 모랄과 풍속론 연구」, 『한국언어문학』 30, 1992.
- 정여울, 「‘풍속’의 재발견을 통한 ‘계몽’의 재인식」, 『한국현대문학연구』14, 2003.
- 정호웅,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과 그 한계」, 이상갑 편 『김남천』, 새미, 1995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5, 지식산업사, 1988.
- 조진기, 「김남천의 『대하』 연구」, 『한민족어문학』 30, 1996.
- 허병식, 「교양소설과 주체 확립의 동력학」, 『한국근대문학연구』, 2권 1호, 2001.
- 재클린 샬스비, 『낭만적 사랑과 사회』, 박찬길 역, 민음사, 1985.
- James FERGUSON, “Economics and Barbarism: An Anthropological Comment on Pearson's “Homo Economicus””,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32:4, 2000.



❖ ABSTRACT

Appearance of Homo Economicus and Morals of Youth  
in Early Modern of Korea with reference to  
*A Large River[Dae-Ha]*

Kim, Jongsoo

This article aims at rethinking on people of Modern styles in early modern period with reference to *A Large River[Dae-Ha]* written by Kim Nam-cheon at 1939. Park Sung-guoen could be called to Homo Economicus, first, have maximized of self-interest in rapid changes of Korea society with loan sharking, rising to upper class in new early modern era instead of traditional nobleman. Park Hyung-geol could be said romantic guy, second, have chased romatic love consist of three elements(love-sex-marriage). But he troubled his love affairs to his family members frustrated his will because of a bastard son.

It is the model of situations, Kim Nan-cheon intended to describe, that Homo Economicus became an object of envy among people in early modern society as well as the choice has been hard in conflicting between family and lover, concretizing anachronism through history of family.

---

Key Words

김남천, 『대하』, 근대 초기,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출현, 사익의 극대화, 주체적 자각  
Kim Nam-cheon, A Large River[Dae-Ha], Early Modern of Korea, Appearance  
of Homo Economicus, Morals of Youth, Maximization of Self-Interest

논문접수일: 2014. 05. 10

심사완료일: 2014. 06. 09

게재확정일: 2014. 06. 13